

2016년 11월 미얀마 양곤 그리고 빼이네빈
준영, 도현, 정민, 유진의 이야기

심포가 필요한 이들에게, 칫데



칫데[chitdae] : 사랑해

November 2016



Mon	Tue	Wed	Thu	Fri	Sat	Sun
31 산 도착 결로 장보기, 우소원 농장, 별 아마지 시레	1 아궁이, 사워장 만들기 도전! 닐서리 급결성	2 하루 종일 오렌지 농장 노동	3 목숨 건 오렌지 농장 노동, 마을 구경	4 은종일 닐서리, 셰야마들과 함께 한 진수성찬 산 저녁식사	5 마모수에 셰야마 마을 왕진구경, 마을 페야 구경	6 휴식
7 닐서리, 셰야마들과 함께 산카옥쉐 저녁	8 정민 피부병, 마지막 만찬, 양곤행 버스	9 양곤도착, 정민 병원가다. 한솔님 오신날	10 휴식	11 빈곤나무 완성, MICT 준비	12 MICT 바자, 파고다 구경	13 회의 (닐서리, 비자 트립, 중간평가)
14 GH 일일스텝, 기도주간, 우노교회 200주 년 파티참여	15 마오피라바 (손바닥나무)	16 홀랑파야 (손바닥나무)	17 기도주간, 장보기, 산드라 간사님과 한식 저녁	18 비자트립 출발 방콕행 비행기	19 카오산로드	20 정민 불거리, 병원/짜뚜짝
21 방콕에서 방콕? 나홀로 파티야?	22 방콕에서 방콕? 나홀로 파티야?	23 비자트립 끝	24 중간평가 준비	25 Pastor's Fellowship	26 정민 B-day	27 중간평가 준비
28 중간격려 시작, 규홍간사님, 소피아 양곤도착, 세꼬랑&모히뜨	29 중간평가, 양식 저녁만찬	30 홀랑파야 라운딩, Y 직원 기숙사/ 마사지/ 쉐다곤 투어	1 산드라 간사님과 소통하기 미션, 한식 저녁만찬, 소피아 따라	2 규홍간사님 따라, 중간격려 끝	중간격려	

페이네빈

비자트립

중간격려

| Contents |

Prologue

Shan State 9일간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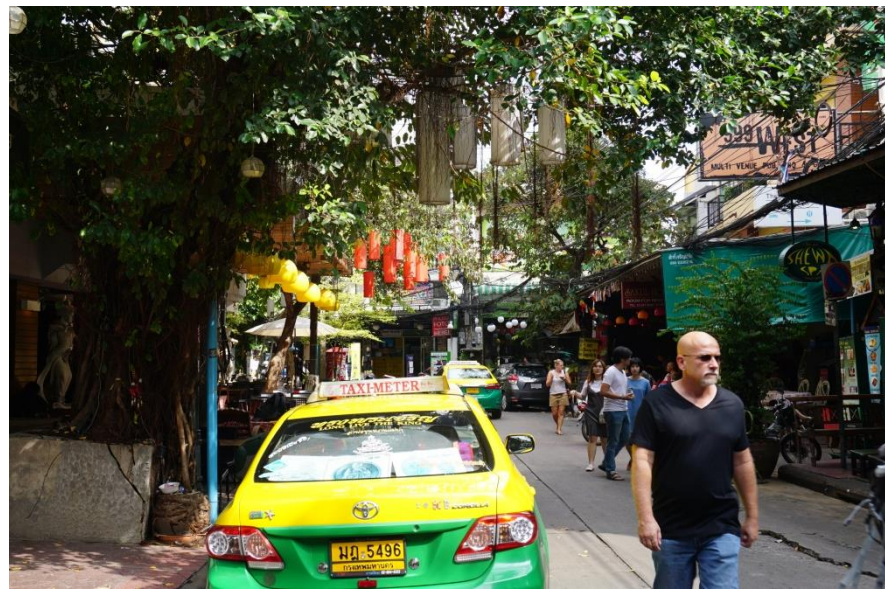
첫째 사진전

- # 우리 어느 특별한 날 (7) MICT 바자
- # 우리 어느 특별한 날 (8) 기도주간
 - # 널서리, 손바닥나무
- # 심포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태국 비자트립
- # 응원과 조언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중간격려

부록

- # 유진의 간호일기
- # 내 맘대로 기념일

개인 에세이



| Prologue |

11월은 양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기회가 많았어.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접하고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지. 하지만 9월과 10월의 짝짝한 일정을 소화해 왔던 우리는 상당히 지쳐있었고, 몸에서 경고의 신호가 나타난 팀원들도 있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표’ 가 아닐까.



Prologue

2016.10.29



산 스테이트를 가기 전, 산드라 간사님과 미팅에서 장 볼 리스트를 미리 의논했어.

그리고는 장을 보러 다같이 오션 마트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한국 양념장을 먼저 집었어. 간장, 고추장, 된장은 필수겠지?

간사님께 “고추장 2개 사도 되나요?...”라며 조심스럽게 물었고, “예스”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고추장을 담았지.

그리고는 간사님의 표정을 살피며 카트 안에 샤프시 멀치 액젓도 넣었어. 산에 있는 동안 이 녀석 덕분에 각종 양념장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고, 어딘가 2% 부족한 국거리와 찌개의 맛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었지.

그 외에도 모기향, 물티슈, 기차에서 먹을 과자, 음료수, 컵라면을 넉넉하게 사고 장보기는 끝. 후...힘들었다.

총 5만 5000짖 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다들 동공지진...
그 중 절반 이상이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
괜찮아! 기차 안에서 다 사뿐히 클리어 할 수 있어!^^

짐 정리를 하면서 유진이와 나는 많이 들떠있었어. 양곤을 벗어나다니!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옷도 차곡차곡 개고, 같이 듀엣 무대를 했다가 춤도 뚫다가 난리가 났지. 오빠들이 한심한 표정으로 절레절레 하며 나가더군... 아랑곳 하지 않고 더 격정적으로 놀았어!

그래 우리 신났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짐 정리를 한 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 ‘산은 얼마나 추울까? 정말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울까? 산에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 거기서 행복할까?’

Shan State | 9일간의 이야기

우리는 9일 동안 산 스테이트에 머물렀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자, 이제부터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Photo by 준영, 도현, 정민-유진
Edited by 정민(편집자 주관 주의)



두근두근. 드디어 산으로 출발하는 날.

우 띠이와 우 아옹 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 모기장, 식용유, 쌀을 비롯해 우리가 기차에서 먹을 끼니까지 추가로 들고 가야 할 짐들이 정말 많았어. Y스텝 분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기차역으로 출발! 간사님과도 작별한 후 기차는 출발했지.

날씨도 화창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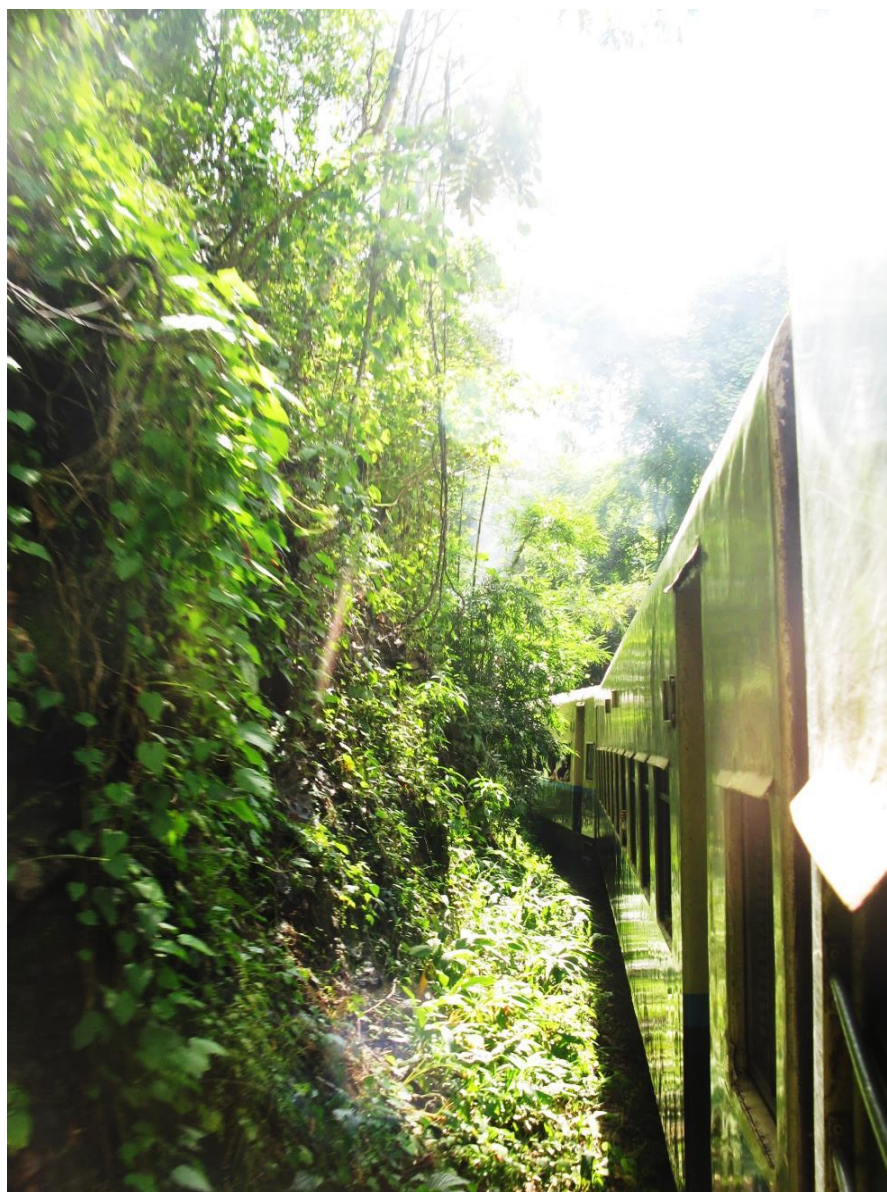
첫째 날, 기차는 드넓은 평야를 가로질러갔어.

해가 지면서 하늘이 노을 빛으로 물드는데, 색들이 겹겹이 싸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야. 그 순간을 눈으로 담아내기 위해 한 없이 바라보았던 것 같아. 사진으로 못 보여줘서 참 아쉽다.

준영, 도현 오빠는 곤히 잠들어 있고, 나와 유진이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 지금 덜컹거리는 기차와 기차 안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 보였어. 뭐라 설명해야 하지.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덜컹이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노란빛으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감싸고 있는 기차 안에서 서로가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뜻 인 가봐.





2016.10.31

이튠날, 기차에서 아침을 맞이했어.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펴고 밖을 바라봤어. 기차는 평야를 지나 굽이 굽이
펼쳐지는 산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지. 따뜻한 햇살 아래
모든 나무들이 반짝이더라.



청명한 하늘 좀 봐. 정말 환하고 예쁘지 않아?
하늘 아래 창고와 나무들도 보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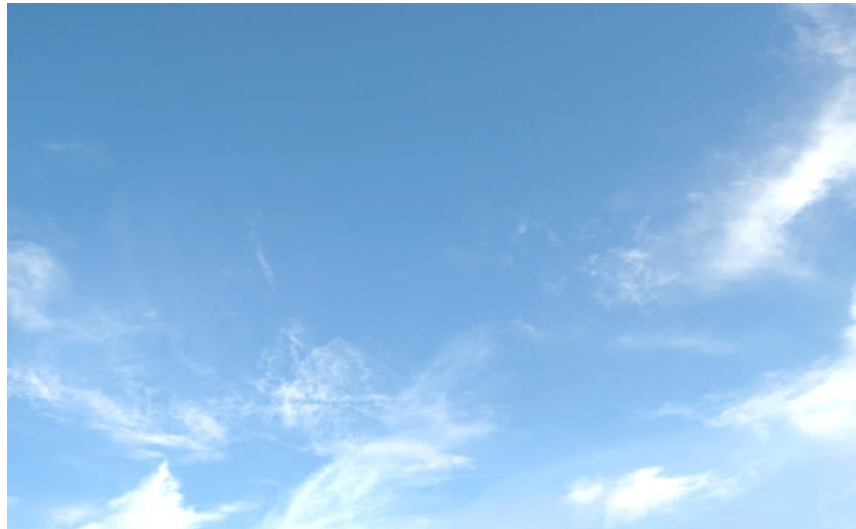
칙칙폭폭 산을 가로질러 가던 기차는
우리들에게 초록 빛깔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산을 선물해 주었어.



오후 2시쯤 됐을까. 께로 기차 역에 도착했어. 감사하게도 도 닌닌카 선생님이 마중 나와 있으셨어. 우리는 먼저 도 닌닌카 선생님 아들 댁으로 향했어.

도착한 후, 배가 고프지 않냐고 다정하게 물으시고는 점심을 만들어 주셨어. 신선한 야채, 콩, 매콤한 장 반찬들을 보고 유진이가 정말 좋아했지. 오빠들도 맛있게 먹었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우물물을 들여다봤는데 파리가 똥똥 떠있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파리를 걷어내고 설거지를 했지. 하하. 설거지를 끝낸 후 우리는 마을 시장에서 요리할 때 필요한 야채와 고기를 구입했어. 이후 께로와 빼이네 빈 마을 사이에 있는 쉼터로 향했어.

엄청 흔들거리는 트럭을 타고 갔는데, 덜컹 하면 엉덩방아를 쿵! 찡게 돼서 힘을 꽉 주고 탔어. 그래도 다들 즐겁게 웃으며 장난치고 놀았어. 준영이 오빠와 유진이는 바들바들 중심을 잡으며 사진을 찍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지.



신난 유진이에 비해 상당히 지쳐 보이는 두 사람.. 힘을 내요. 아편타!



한 40분쯤 갔나. 쉼터에 도착했어. 강아지 3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반겨줬어. 주위에는 오렌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고, 한 편에는 장작들이 쌓여있었어. 오렌지 나무를 자세히 보니 싱싱한 오렌지들이 주렁주렁 매 달려 있더라.

쉼터 안에는 앉을 수 있는 공간과 부엌이, 쉼터 밖에는 화장실이 있어.

신선한 오렌지를 받고 신난 우리는 사진을 찍고, 도 닌닌카 선생님과 다같이 단체 사진도 찍었어.

기차에서 양치밖에 못해서 매우 짹짹한 상태여서 쉼터에 들린 김에 다들 샤워도 하기로 했어.



셋고 나오니 어느새 저녁이었어. 밤이 되니까 많이 춥더라. 진짜 입김이 나와서 신기했어. 바람막이 옷을 얼른 입고 모닥불에 앞에서 몸을 녹였어. 다들 용기종기 모여 모닥불 앞에서 꿀을 까먹다가 도 닌닌카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저녁을 먹었어.

계란말이와 닭고기를 반찬으로 주셨는데 뜨거운 밥이랑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더라. 다들 뜨거운 밥을 먹는게 얼마 만이냐며(눈물) 엄청 많이 먹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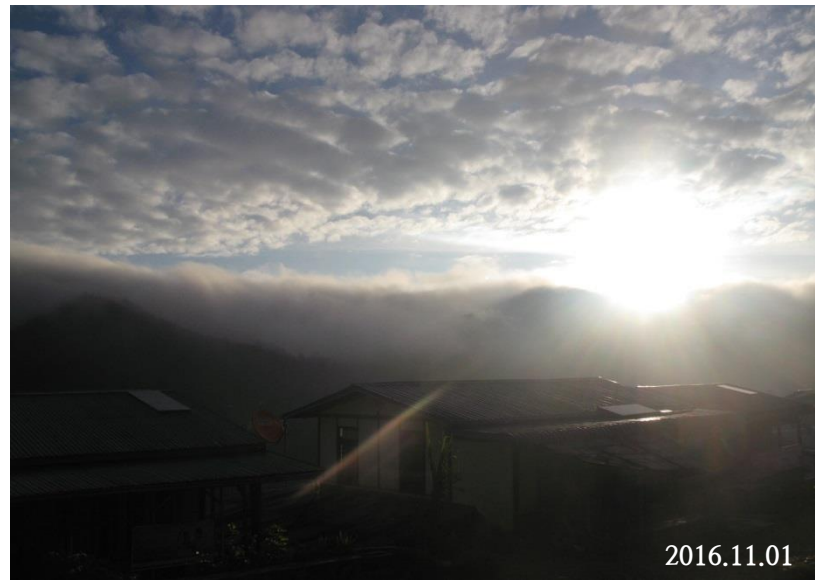
우리가 놀랐던 것은 밤이 되면 별이 정말 정말 많이 보인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은 처음이야. 하늘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반짝이는 별과 은하수를 보며 우린 연신 감탄했다지.

빼이네빈 마을로 향하는 트럭에서 도란도란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데, 난생 처음 별뿔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 재빨리 소원을 빌었지.

따뜻한 모닥불을 쪼며 이야기 하는 것, 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 보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이었어.

1시간 정도 지나니 우리가 생활할 빼이네빈 마을에 도착했어. 8시 밖에 안되었는데도 새카만 밤이었어. 우리는 손전등을 키고 짐을 대강 풀고 잠을 청했어.





2016.11.01

날이 밝았어. 우리는 11월의 첫째 날을 빼이네빈 마을에서
맞이하게 되었어. 어젯밤은 정말 추웠어. 바람도 많이 불고,
집 안의 공기도 차가웠어. 캄캄한 밤과는 다르게 아침은 정말 환하다.



그림 같은 아침풍경이지?





우선, 우리가 살았던 빼이네빈 마을에 대해서 소개할게.
 오르막길 위에 있는 큰 고목나무를 시작으로 내려 갈 거야.
 고목나무로부터 이어진 큰길이 보이지?
 이 큰 길을 따라 계속 쪽 쪽 내려가면 마을 분들이 사시는 집들이 나와.

내리막길 오른쪽에는 나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와 보면
 (그렇다고 진짜 넘으면 혼남) 나무로 길다랗게 이어진 집들이 나와. 바로
 이곳이 선생님들 집이야.

집집마다 우물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의 물은 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거나, 빗물이야.
 이 물로 씻고, 요리도 해먹어. 사진에 보이는 바로 저 우물 앞에서 유진이와 나는
 샤워를 하게 되지...



큰길

나무 울타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집 앞까지 자주 놀러와. 미안마
어가 아직 서툰데도 다가와 주
는 아이들이 고마워.

여기는 주로 썬야마(선생님), 아이들과 같이
수다를 떨던 곳이야. 아이들이 자주 이 곳
에서 공기놀이를 하거나 장난치며 놀아.

동그랗게 쳐져 있는 부분 보이지? 저기가 우리
가 지내는 곳이야. 바로 맞은 편에는 선생님 집
들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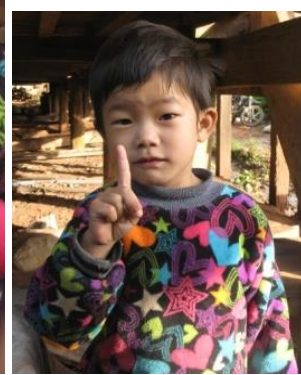
집 안으로 들어오면 침대가 3개 놓여있어. 분홍색 모기장 침대는
우 띠이 침대, 그 다음은 준영, 도현 오빠, 그 다음 천으로 커튼이
쳐져 있는 곳 옆에 있는 침대가 유진이와 내가 잠을 자는 곳이야

우리 침대 맞은편에는 화장대로 쓰이는 책상 하나가 있고,
아주 큰 식탁이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여.

사실 좋게 말해서 방 이라고 했지만 큰 창고에 침대 3개를
놔둔 것 같아... 천장에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곳을 종이
박스로 막아 놓아져 있긴 한데, 저기로 밤마다 바람이 엄청
들어와. 잘 때 바람막이와 두꺼운 이불을 푹푹 싸매고 자야만 해.

이렇게 마을과 집 소개는 끝!





먹음직스럽지? 아침으로 닭볶음탕을 먹었어.
나와 유진이는 야채 손질을 하고, 준영이 오빠는
요리를 하고, 도현이 오빠는 양념장을 만들었어.

아침 든든히 먹고 오렌지 농장으로 출발!

집 앞에서 쎬야마 딸, 아들과 처음으로 만난 기념 사진도
찍었네. 아이들의 개구진 모습이 귀엽지?
깜찍한 하트 옷을 입은 아이의 이름은 예 미엔 퓨 야.
사실 미엔이를 볼 때마다 배우 온주완이 떠올라...

느낌 있지 않아?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한 후, 아침 준비를 했어.



한 줄기의 빛도 허용할 수 없다
는 듯이 무장한 패션을 보라.
낚시할 때 쓸 것만 같은 요상한
선글라스부터 수상한 마스크까
지.

무섭다...

2016.11.01



오렌지 농장까지 걸어가야 했기에 일찍 집 밖을 나섰어.
마을 분들 또한 오렌지 농장으로 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셔. 우리는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학교를 지나쳐서 계속 걸어갔어.

다들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중간 중간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걸어갔어.

한 15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처럼
너무 아픈 거야. 그렇게 한 쪽 눈을 감으며 걷고 있던 중,
갑자기 마을 분 중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오늘은
오렌지 가격이 낮아 수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돌아가기로 했지.

눈이 너무 아파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거울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





오늘 오렌지 농장에 못 간 대신, 널서리를 하러 가기로 했다. 나는 눈이 아파서 침대에서 쉬다 잠이 들었고, 준영 오빠는 아궁이랑, 사위실을 제작하기 위해 여기에 남아 있었어.

아궁이 만드는 과정이 보이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흙으로 아궁이 만드는 오빠가 넘나 대단한 것. 장인의 포스가 느껴진다.

이 아궁이가 만들어진 이후로 사방으로 바람이 불어도 손쉽게 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 오빠 덕에 요리하기 수월해졌지. 제이 쎬야마 한테 “또래(뚝뚝해)” 라고 거듭 칭찬 들은 건 보너스.

한편 이 시각, 유진이와 도현이 오빠는 널서리를 하러 갔어.

집에 돌아온 후 준영 오빠에게 인공눈물 액을 받아서 넣었지만 계속 아팠어. 내가 눈과 씨름하는 동안 준영, 도현 오빠와 유진이는 점심을 만들었어. 부채와 마른 장작을 든 그녀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 이상하게 너의 입김 한방이면 불이 활활 타더라. 불의 여신 인정.





넬서리 활동을 소개하기 전, 우선 학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까 해.

아까 본 고목 나무 있지?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학교가 나와.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가로로 길다란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야. 교실 안을 살짝 살펴볼까.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네. 그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놀이터야. 넬서리 아가들이 신나게 노는 곳이지.

길다란 교실을 지나, 오른쪽 빨간 지붕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넬서리를 하는 유치원이야. 학교 정문부터 유치원 앞 까지 길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



학교 정문 놀이터



학교 구조를 살펴봤으니 선생님 소개도 빠질 수 없겠지?
총 10분의 쎬야마 중, 6명의 쎬야마를 소개할게.



마 모수에

널서리 선생님이자 빼이네빈 마을의 간호사.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능력자! 선생님일 때는 재치와 포스를 겸비. 마을 왕진을 할 때는 프로페셔널함까지 두루 갖춘 여자! 멋져요.



닌누

찰랑이는 긴 생머리의 그녀. 샤워할 때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어. 미얀마에서는 하의를 높은 빨랫줄에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 샤워 이후 부쩍 친해진 건가요 우리 >///<



도 닌카이

학교의 교장선생님. 처음 산에 도착했을 때 부터 우리들을 신경 써주신 분이야. 선생님이 제공해주신 이불과 침대 덕분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포인트.

제이

호탕한 목소리의 소유자.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제이 쎬야마 오신 날엔 분위기 업 업! 쎬야마 웃음소리를 들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맛있는 음식들을 푹푹 만들어내는 금손이 시기도 해.



웰루에

환한 미소를 가진 애교쟁이 선생님. 준영 오빠한테 “와(똥똥해)” 라고 자주 놀리지. “땡글라바!”하고 인사하면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해주셔.

학교 소개와 선생님 소개는 끝이 났어. 이제 도현오빠와 유진이가 했던 널서리 활동을 보러 가볼까?

쎬씨모

꾸러기 같은 선생님. 선생님의 말이라면 곧이 곧대로 믿는 우리들에게 자주 장난 치셔. 우리집과 가장 가까이 사셔서 이야기도 자주 해. 불 피우기 달인이며 각종 산 음식 레시피와 간식 만드는 법을 전수 해주셨어.



알록달록 예쁜 신발들 좀 봐.

과연 어떤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마 마 판다



떼 떼



라멘둥



산 투



야 미엔 푸



에에초



아웅 퇴



찌인 리 아웅



표 투라 아웅



머 어웅 예린



아웅 칸 모



표 리 아웅



쭈 닌다 모



요 뽀뽀 나인



위 예인 표



아웅 예 원표



용 예 디린



찌야 디린



마피부ㅍㅍ

11월 1일. 도현오빠와 유진이는 이름표 만들기 활동을 아이들과 함께 했어.

총 19명의 아이들이 만든 멋진 이름표 좀 봐봐.

이름을 알아 볼 수 없는 아이도 있고, 결석한 아이들도 있어서 아쉬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
근데 애들아, 왜 목걸이가 다 뒤집어져 있니?





11월 2일이 되었어. 어제 못 갔던 오렌지 농장을 가는 날이야. 우 띠이, 우 쏘원이 우리와 함께 동행했어. 화창한 하늘 좀 봐. 몽실몽실한 구름이 있는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지는 산들이 너무 예쁘지?

오렌지 농장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난 탓에 조금 피곤하기도 했는데, 예쁜 풍경들과 웃으며 밝게 걸어가는 팀원들을 보니까 힘이 났어.

어제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렸는데도 다들 빠르게 걸어가더라. 난 신발이 계속 빠끗거리어서 그냥 천천히 걸어갔어.

멀어져 가는 빼이네빈 마을이 보이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





드디어 오렌지 농장에 도착했어. 크고 작은 오렌지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농장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어. ‘와…크다…넓다…’ 라는 생각만 되 뇌였어.



어떻게 이 넓은 땅에 무수히 많은 오렌지 나무 씨앗을 뿌렸을까? 또 이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갔을까?

비록 농장 일은 처음이지만, 마을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즐겁게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농장 일을 하기 전, 우린 오렌지 창고에 앉아 조금 쉬었어. 우 쏘원이 큰 오렌지를 이것저것 골라주셨어. 오렌지 껍질이 초록색이라서 엄청 서 보였는데 먹어보니 엄청 달았어. 다들 찹찹 몇 개 씩이나 까 먹었어.

자, 맛있는 오렌지도 많이 먹었겠다. 이젠 일을 시작해야지. 오렌지 바구니를 각자 하나씩 메고 언덕길을 내려가서 오렌지를 따어.

햇볕이 따가워서 다들 모자를 꼭 눌러쓰고 열심히 일을 했어. 우 띠이가 나무 가지를 구부려 주면 나와 유진이는 열심히 오렌지를 따어. 오빠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오렌지들을 공략했지. 손이 컸다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잡고 딸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웠어. 대신 난 스피드로 승부했지.

중간 중간 우리가 잘못 딴 오렌지는 먹을 수 있었어. 야호! 어느새 주머니가 수북했어. 허허.(고의 아님)

오렌지 바구니가 가득 차면 바구니에 달린 끈을 이마에 이고 오렌지 창고에 도로 가져와야 하는데, 이거 진짜 엄청 무겁다. 쉬운 일이 아니야. 준영 오빠가 일을 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오렌지를 많이 날랐어. 근데 한번 나를 때 마다 오렌지 삼분의 일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함정.

여튼, 유진이는 한번 시도해보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어. 조심해라고 외친지 얼마 안돼, 나도 미끄러운 땅에 넘어졌어. 진짜 꼬리뼈 나가는 줄 알았다...



농장 일을 마친 후, 마을 분들이 점심을 준비해주셨어.

맛있게 먹고 돌아갈 때가 되니 호박과 나물도 두둑하게 챙겨주셨어.

돌아가는 길 우린 우 쏘원 쉼터에 들려 샤워를 했어.

무리한 탓일까. 우띠가 이 날 이후 많이 편찮으셨어.





11월 3일. 역시 아침은 화창하구나. 이 날도 역시 농장 일을 하러 가는 날이었어. 우 띠이는 편찮으셔서 집에서 쉬시기로 했어. 우리는 마을 분과 같이 어제 일했던 곳과 다른 농장을 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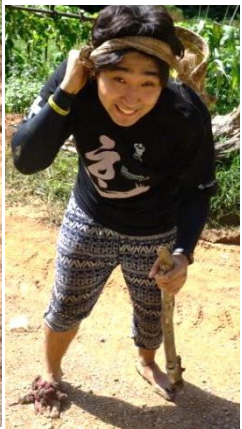
어제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져서 농장 가는 길이 무척 힘들었어. 길은 미끄럽고, 웅덩이에는 물들이 고여있었어. 어제의 고된 농장 일로 다들 조금씩 지쳤던 것 같아. 농장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도 더 멀게만 느껴졌지.

11월 3일의 농장 일은 정말 극.한.체.힘 이었어.

풀로 뒤덮인 질퍽거리는 평지를 지나 산속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비 온 뒤라 땅이 엄청 미끄러워서 올라 가려고 해도 발이 자꾸 미끄러졌어. 손으로 땅을 짚고 겨우 올라가, 오르막 지대에 있는 오렌지들을 딴 후 내려가야 했지.

오렌지를 들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였어. 내려가는 길은 더욱 더 조심해야 했지. 우리는 마을 분들처럼 능숙하게 중심을 잡으며 산길을 내려 가는 것이 힘들었고, 장화와 같은 제대로 된 장비 하나 없는 채 일을 해야 했기에 다들 너무 힘들어 했어.

가파른 산길을 내려가면서, 일명 마의 구간에서 다들 많이 넘어졌어. 유진이와 준영오빠는 오렌지를 이고 가다가 크게 넘어졌어.



도현 오빠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짝 주고 걸어 다녔지. 나는 후반에 마을 분이 빌려주신 장화를 신었는데도 넘어졌어. 정말 위험 천만한 순간들이었지.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준영 오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극한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남겨야 한다며 사진기를 들었어.



도현 오빠와 유진이가 사진에 없어서 아쉬운데 다들 일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마을 분들과 열심히 일한 후 같이 쉬고 있어.

가득 쌓인 오렌지를 보니 뿌듯하다.

점심 시간이 되고, 우리를 위한 밥도 제공해 주셨어. 다들 고된 노동에 허기져 있던 터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어.

집 앞 우물에서 샤워하는 것이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우썸원 쉼터에 들러서 씻어도 되냐 물었고, 겨우 승낙을 얻었어.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서 신발도 떨어졌고, 쉼터 도착해서도 촉박한 샤워 시간으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어.

도현 오빠와 유진이는 먼저 씻은 후 우 띠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준영 오빠는 나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어. 트럭을 타면서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땀을 흠뻑 흘린 후 씻는 것 한번 참 힘들구나...'

집에 돌아와 오늘 입은 옷을 빨래한 후, 웰루에 켄야마 집으로 놀러 가게 됐어. 켄야마 어머니께 인사도 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도 구경했어. 유진이가 흥미롭게 교과서를 살펴 보며 이것 저것 질문을 많이 했어.

언제 한번 놀러 와서 자고 가라는 켄야마 말에 우리들은 바로 네! 하고 외쳤지. 켄야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을 먹으로 집으로 향했어.

저녁으로는 고추장 돼지고기 주물럭을 먹었는데 이 양념은 도현 오빠가 만들었고, 요리는 준영 오빠가 했어.

산에서 해먹는 음식의 양념장은 대부분 도현오빠가 만들어.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었다!





11월 4일 이 되었어.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

오늘 아침 메뉴는 고추장 볶음밥과 달걀 토마토 볶음이야.
언제 먹어도 항상 맛있어.

다들 한 그릇씩 짹짹 비우고, 설거지도 말끔히 끝냈어.
널서리 준비물 챙기고 널서리 하러 출발!



널서리 활동을 하러 유치원에 가니, 문 앞에서부터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이 참 귀여워. 11월 4일은 오전, 오후 모두
널서리를 하는 날이야. 아이들과 함께 미따주(가족)에 대해 배우고,
미따주 구성원들을 색칠한 후, 색칠한 구성원 그림들을 붙혀
한 가족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

아이들이 어떻게 색칠했나 한번 볼까?



2016.11.04



오구오구. 이빠라. 다들 알록달록 예쁘게 색칠하고 있네.





짜잔. 아이들이 완성한 미파주 그림이야. 한 데 모아서 붙이니 정말 예쁘지? 아이들과 함께 모여 사진도 찰칵. 애들아. 너네 소질 있는 것 같아!! 어 양 또래!!!



야 미옌 류의 애정의 대상인 도현 오빠. 오빠의 양 볼부터 이마, 입술까지 로맨틱한 뽀뽀를 선사하던 너의 모습을 잊지 못해...

미옌이 너 이전 보고서에서는 다른 오빠 좋아하더니,

역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미 따주 널서리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과 다같이 우르르 놀이터로 뛰어 나갔어. 내 손을 꼭 잡고 앞장 서며 뛰어가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찌나 빠르게 오르막길을 올라가던지.

아가야. 언니 힘들어...

아이들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더라.

놀이터에는 나무로 만든 미끄럼틀과 시소가 있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들이 매끄럽게 내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려온 아이들은 안전하게 잡아주었어. 같이 시소도 타고 재미있게 놀았지.

한 쪽에는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 도현 오빠는 틈새 폭풍 운동을 하였지.

다들 신나게 논 후, 언덕길을 내려가, 아이들 손을 짹짹 씻기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어.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본 후, 우리도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어.



맞다! 11월 4일은 코코와 우리가
만난 날이기도 해. 점심을 준비 할
때 즈음이었나. 누군가가 이 강아지
를 우리 집 근처에 놔두고 가버렸어.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며 뛰어오는
모습에 마음을 사로잡혔어. 코피 땡.

우리는 이 강아지에게 코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털 색깔이 코코아 색깔 같아서)

점심으로 간장볶음밥과 야채가 듬뿍 들어있는 라면을 먹고 다시
널서리를 하러 갔어.

오후 널서리 활동은 신문지 양 면을 색연필로 색칠하고, 색칠이
 끝나면 비행기를 만들어 주는 활동이었어. 사진을 찍지 못했네.

비행기가 잘 날지 못했는데도 뛰어다니며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조금 더 가벼운 종이 있었다면
더 잘 날았을 텐데.

미안한 마음에 우리는 모자도 접고, 배도 접고, 학도 접어 아이들
에게 주었어. 나는 아이들과 손을 포개고 같이 접었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만들고 싶었거든.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울동하며 노래 부르고 널서리는 끝이 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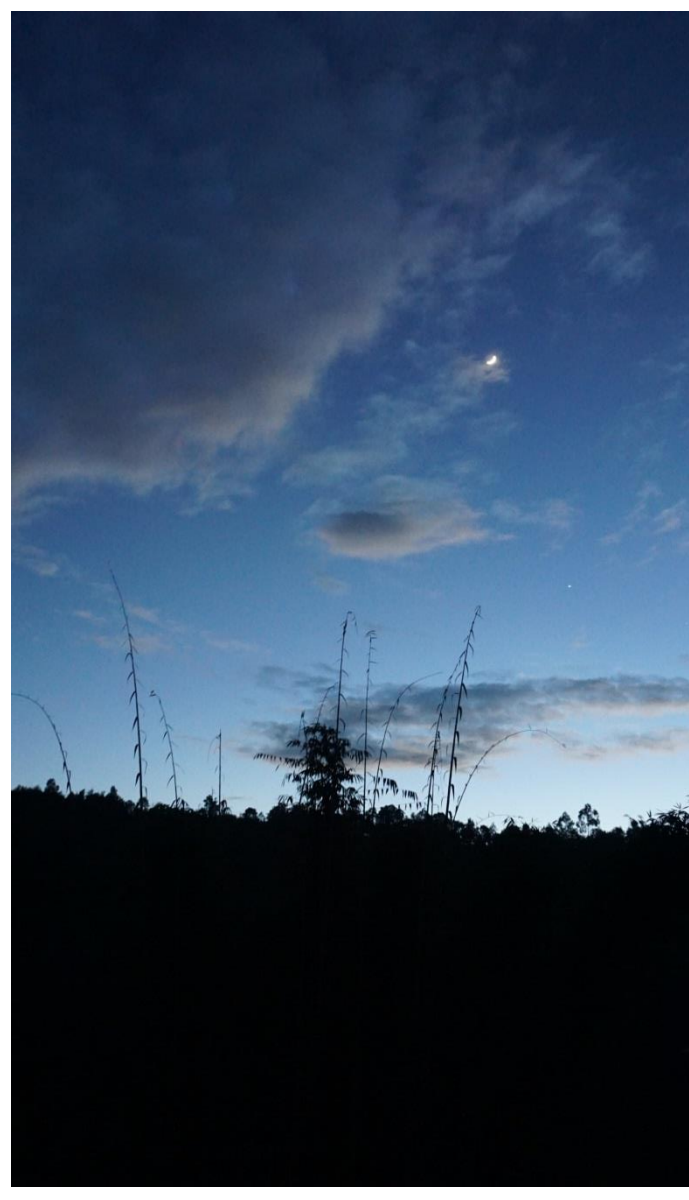
넬 서리 활동이 끝난 후,
쨌쨌모, 제이 쨌야마가 저녁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어. 농장에서 받은 호박을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셨지.

우선 다같이 용기종기 모여 야채를 다듬었어.
산 양파는 작는데 엄청 매워. 고개를 양파랑
최대한 멀리 하고 칼질하는데도 눈물을 주체
할 수 없었지.

나와 달리 쨌쨌모 선생님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능숙하게 찹찹찹 양파를 썰었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나고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어.



짜잔. 모든 요리를 다 완성했어. 저녁 메뉴는 단호박 볶음,
감자볶음, 호박잎국, 맘미 라면, 각종 반찬들이야. 다들 손
을 바빠 움직였어. 특히 호박볶음이 진짜 맛있었어. 달달하
고 부드러운 맛으로 인기만점이었어. 정말 배 터지도록 먹었
다.



저녁을 먹고 다같이 설거지를 끝내니
어느새 날이 저물고 있었어.

깜깜해지기 전에 세수와 양치를 하고
집안으로 속 들어왔지.

몇 일 전부터 한국 노래를 듣기 시작했었어.
이 날도 어김없이 노래를 들으려고 mp3를 켜지.
침대 머리맡에 놔두고 유진이와 함께 들었어.

귓가에서 속삭이는 노래들을 들으니
어느새 잠이 솔솔 오더라.

이런 게 행복이지.

11월 5일. 드디어 주말이 되었다!

토요일 아침. 아침메뉴는 볶음밥과 호박 잎을 넣은 계란 된장국. 도현 오빠가 손가락으로 국을 훑훑 젓고 있네.

산에서 우리가 해먹은 모든 요리는 맛 없었던 적이 없어.

아침을 먹고 다들 휴식을 취했어.

점심을 먹은 후, 도현오빠, 유진, 나는 마 모수에 켜야 마 왕진을 따라갔어. 마 모수에는 이 마을의 간호사이기도 하셔. 집 4곳을 방문해서 열은 내렸는지, 몸 상태는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확인하셨어.

첫 번째로 켜야마의 언니 집을 갔어. 차랑 오렌지를 내주셔서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 두 번째 집에서는 아기 고양이 2마리가 너무 귀여워서 쓰다듬어 줬던 기억이 나네.

다른 집을 방문 하러 가는 중, 익숙한 널서리 아이들이 보여 인사했더니 아이들이 점점 불어나 마지막 집은 왠지 낯익은 분위기였지.하하.

선생님이 진찰하시는 동안 아이들 이름을 물어보고, 아이들이 알려준 게임을 하며 같이 놀았어.

집에 돌아오니, 켜야마 선생님이 같이 목욕 하러 가자고 집에 오셨어. 드디어 론지만 입고 샤워해야 할 날이 온 건가 하며 동공지진이었지.

마을 분들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 한적하긴 했는데, 우물 앞에서 샤워 할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 좀 했어.

고민하던 중 에라 모르겠다 하며 박력 있게 론지를 딱! 갈아입고 우물가로 가는 유진이를 보고 나도 용기를 냈어. 멋져요 언니.

쉘터 처럼 화장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나에게서는 극한의 체험이었어.

마을 분들이 지나가며 쳐다 보기도 하고, 저기 멀리 있는 집 안 창문에서 우리를 보기도 했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몸을 적시며 씻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악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 최대한 빨리 씻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지.

머리도 감고, 솔로 발톱도 깨끗이 씻었어. 허둥지둥하며 멘붕의 샤워는 끝이 났지.

다들 경험해 보는 걸 추천할게. 내 생애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





샤워 할 때는 내가 왜 샤워를 한다고 해서 이 고생을 하나 했지만 씻고 나니 한결 개운해져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 어휴..나란 사람...절레절레. 유진이도 한결 개운해 졌다며 매우 만족해 했지.

샤워를 마친 쎬쎬모 쎬야마가 우리를 위한 간식을 만들어주셨어! 야호! 호박,감자,코르크디 튀김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재료들을 쪼쪼 썰고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늘도 빵았어. 다진 마늘에 라임즙을 뿌리면 소스는 완성이야.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튀김을 노릇노릇하게 구웠어. 요리하는 도중에 닌누 쎬야마, 마 모수에 쎬야마와 야 미엔 퓨 도 놀러와서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 튀김이 진짜 맛있었어. 단호박 튀김은 달달하고, 감자 튀김은 고소하고, 코르크디 튀김은 담백했어. 짱 맛있어. 사랑해요 쎬야마.





간식을 먹고 닌누, 쎄쎄모 쎄야마와 같이
폐야 파고다(절)에 놀러 갔어.

신발을 벗고 파고다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었어.

그리고는 절로 마을의 전경이 보이는 바위 위로
올라가 예쁜 경치도 감상했어. 날씨가 그리 맑지
않았는데도 충분히 예뻐어.



11월 6일 일요일. 오늘은 원래 오렌지 농장을 가야 할 계획이었지만. 빠듯한 일정으로 피곤했던 우리들은 휴식을 취했어.

유진이가 토요일 새벽부터 많이 아팠어. 배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새벽 내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 아침에 속이 너무 울렁거린다며 눈물이 그렇그렇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오빠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

마 모수에 선생님이 유진이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오셨고, 유진이는 약을 먹고 침대에서 휴식을 취했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유진이가 죽이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음식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

유진이가 잠들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난 후, 오늘도 간식으로 유부튀김을 해주시겠다며 썸세모 선생님이 오셨어.

이제 소스 만드는 건 똑딱 이야. 유부 튀김이 완성 된 후 다들 맛있게 먹었어. 준영 오빠와 나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아주 신 소스에 유부를 푹 담가먹었지.



2016.11.06

튀김을 먹고 차를 마시며 우리 모두는 티타임을 가졌어.

유진이가 아침부터 계속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고, 단지 휴식을 원한다는 유진이의 말에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병원에 가기로 했지.

팀원 한 명이 이렇게나 아픈 상황에서 무리해서 산 생활을 하는게 옳은건지, 산 일정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논쟁 끝에 산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이후 유진이는 차츰 괜찮아져서 같이 저녁을 준비했어.

우리들은 썸세모 썸야마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제안했어.

볶음밥과 된장국을 만들고 선생님이 주신 빼다우시 반찬으로 맛있게 식사를 했어.





11월 7일 아침이야.

아침을 먹고 오늘 쓸 신문의 앞면, 뒷면을 미리 색칠했어.
이후 준비물을 챙긴 뒤 널서리 하러 출발!

모자이크 그림 만들기 활동이
끝난 후 깨끗이 바닥을 쓸었
어.

이 후 YWCA에서 이곳을 방
문했어. 우리는 20분 정도 일
찍 나왔어.



오전 널서리는 모자이크 만들기 활동을 했어. 우선 널서리에 도착하자
마자 쉼야마께 큰 흰 종이 3장을 받아서, 신문지 조각을 붙일 밑그림을
재빨리 그렸어.

색깔 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한 후, 3조로 나누어 신문을 나눠 줬어.
이제 이 신문을 잘게 잘게 찢으면 되는데 다들 정말 거침없이 잘 찢
더라. 이런 똑똑이들. 종이 찢으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

신문지 조각이 너무 큰 친구들에게는 더 작게 작게 찢는 법을 가르쳐줬
어. 다 찢은 신문을 미리 그려놓은 밑그림에 붙이면 모자이크 완성!

알록달록한 색들이 모여서 예쁜 꽃이 완성되었어! 마 모수에 쉼야마도
예쁘다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셨지.





오후 널서리는 풍선아트 활동이었어.
널서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도 같이 참여했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강아지, 칼, 모자
를 만들어 주었어. 남자 아이들은 칼을
제일 좋아했어. 강아지 풍선도 인기 만점
이었지.

강아지 풍선을
기다리는 애타는 아옹 퇴 의 눈빛이 보이
지?

뜨거운 시선을 받으며 만들었어. 하하.

도현 오빠는
칼을 아주 멋있고 길게 잘 만들었어.

유진이는 강아지 만드는데 아주 능숙했지.
강아지는 동그란 꼬리가 핵심이야.
완벽한 꼬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 붙는
유진이 좀 봐.

유진아... 살살해.

준형 오빠는 강아지 만드는 법을 물어보다가,
아주 멋진 모자를 만들었어.



서툴게 만든 풍선 장난감인데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

길다란 칼로 포즈를 취하는 게 멋진걸?





강아지 풍선이랑 모자도 너무 예쁘다!

미옌아, 넌 왜 화가 난 거야.



서로 장난치며 놀기도 하고,

짱짱 원을 돌며 뛰어 놀기도 하네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장난감 풍선이 풀어져서 힘이 없거나 구멍 나 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여분의 풍선이 없어서 더 만들어 주지 못해 미안했어. 공기가 다 빠진 풍선인데도 손에 꼭 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왜 더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나 하고 반성했어.

강아지 꼬리를 만들 때, 유진이는 입으로 풍선을 가져가 풍! 하며 꼬리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는 따라 해 보다가 다시 유진이한테 가져다 줬어. 침이 범벅 되 있는 풍선 입에도 뭐 어때! 라며 쿨하게 다시 입으로 가져가 꼬리를 만드는 그녀를 보고 이것이 아이를 향한 참사랑 입을 깨달았지. 리스펙.



마지막으로 원을 빙빙 돌며 노래 부르고 울동하며 놀다가 널서리를 마쳤어.





저녁은 켄야마들과 다 같이 모여 산카옥쉐 파티를 했어.
그 누구도 몰랐지.이 날 이후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

카옥쉐를 만들어 주기로 한 제이 켄야마가 오실 동안, 우리와 켄쨌모 켄야마는 재료를 다듬었어. 땅콩과 마늘을 뺀고, 야채도 쪼쪼 썰었지.

이 후 제이 켄야마가 닭고기가 들어간 스프와, 카옥쉐 면을 가지고 오셨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얼른 요리를 해주시려고 했지. 우리는 연신 야바레(괘찮아요)를 외쳐댔어.

나는 제이 켄야마 곁으로 가서 카옥쉐 면 삶는 것을 구경했어.
면 삶기가 끝난 후 그릇에 담아, 닭고기 스프를 얹고, 그 위에 땅콩 가루, 고춧가루, 간장 소스를 뿌려먹으면 돼.



국물이 많이 없는 카옥쉐였는데, 다들 맛있게 잘 먹었어. 도현 오빠는 가리는 음식이 없어서 맛있게 먹었고, 준영 오빠는 땅콩을 못 먹어서 땅콩 가루를 뿌리지 않고 먹었어. 유진이는 굵은 면을 먹으면 소화 잘 안돼. 그래서 면 대신 땅콩을 많이 먹었어. 땅콩을 가득 입에 넣고 엄청 행복하게 오물 오물 먹었어.

다리를 굽다 보니 배도 너무 간지러운 거야. 굽다가 배, 팔, 다리에 버물리를 바르고 잠이 들었고, 새벽 내내 잠결에 간지러워서 계속 굽다가, 버물리를 바르다가를 반복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를 확인해보니 빨간 알러지가 배에 온통 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제이, 켄쨌모, 닌누, 웰루에, 마 모수에 켄야마까지 오셔서 다같이 즐거운 저녁식사를 했어.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나는 너무 좋았어. 오빠들은 기가 빨린다며 힘들어 했지만.

목이며 팔이며 등이며 마찬가지로였지. 아침부터 다들 도 닌닌카 선생님이 모험가를 만드는 것을 돕고 있던 터라 아침을 다 먹고 난 후 나의 상태에 대해 말하기로 했어.

켄야마들이 돌아가신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고 씻고 식탁에 앉았어. 다리가 간지러웠는데, 모기에 물렸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굽었어.



2016.11.08 화

아침 먹기 전 사진 한번 찍고, 다들 폭풍 먹방을 시작했지. 도닌닌카 쎬야마가 직접 만들어 주셨는데 양곤 Y에서 먹는 모헝가 보다 훨씬 맛있었어. 메기 생선으로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국수 면을 넣어서 먹어. 보드랍고 따뜻한 국물과 면이 정말 맛있었어. 2그릇 먹었다. 히히.

유진이는 국물을 좋아해서 또 한번 먹고, 오빠들도 2,3 그릇씩 먹었어. 후식으로는 커피우유를 마셨어. 원두를 갈은 커피 가루에 끓인 우유를 부어서 먹는데, 커피향도 좋고 우유도 달달 하고 너무 맛있었어. 다들 맛있다고 하며 2잔씩 마셨어.(돼지 보스들)

아침을 먹고 난 후 뒷정리를 하고 우띠이에게 나의 상태를 말씀드렸어. 유진이는 내 배와 등을 비롯해 전신에 알려지가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 오빠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 피부 상태를 본, 제이 쎬야마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등과 배를 닦아주셨고, 쎬쎬모 쎬야마는 파나카가 쿨링 효과가 있다면서 발라주셨어.

우 띠이와 산드라 간사님과 통화를 한 후, 우리는 오늘밤에 양곤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로 했지.

원래는 일주일간 산에 더 머물면서 더자운다이 축제를 마지막으로 보고 양곤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오늘 밤에 돌아가야 했기에 오늘 안에 짐을 다 싸야 했어. 나 때문에 양곤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서 팀원들과 우띠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

다들 뭐가 미안하냐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해해줘서 더 고맙고 미안했어.

여튼 양곤행이 결정 된 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들을 보살펴주신 쎬야마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한식을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얼른 짐을 싸고, 한식을 준비했지.





다시 오겠다고 대답 했지만 확신할 수 없기에.. 많이 슬펐어.

웰루에 쎬야마는 나의 볼에 뽀뽀를 해주시면서 조심히 가라고 하시는데, 순간 울컥했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신 쎬야마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또 너무 갑작스럽게 가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 유진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

쎬야마들과도 작별 인사를 한 후, 트럭을 타고 우 쏘원 아드님 댁 걸로로 갔어. 맨 앞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빼이네빈을 마을을 지나고, 오렌지 농장을 지나는데 마음이 묘하더라.

더 이상 찢는 문제로 힘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산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자꾸 생각 났어.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었거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새 정이 많이 들었나 봐.

맨 앞 좌석에서 오빠들과 유진이를 쳐다 봤는데, 다들 멀어지는 빼이네빈과, 오렌지 농장을 지나면서 각자의 생각에 빠져있는 것 같았어.

그 후 모든 짐을 챙겨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 빼이네빈 마을을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학교에 갔어. 제일 먼저 널서리 아이들과 인사를 했지. 예 미옌 튼는 이별을 직감하고 다가오지 않더라.

결국 마지막에 “언니가 너 많이 사랑해” 라고 말하며 꼭 안아줬어. 마음이 아팠어. 정이 많이 갔던 아이들의 이마에 뽀뽀도 쪽쪽 해줬어.

아이들과 쓰다듬고 포옹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진심을 가득 담아 아이들과 포옹했어.

유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 역시 칫테 팀 공식 울보야. 아웅 퇴 한테 인사를 하는데 유진이를 피했어. 울고 있는 유진이가 많이 낯설었나 봐. 서운해 하지 마 유진아. 놀래서 그랬을 거야.

오빠들도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많이 아쉬워했어.

마지막으로 쎬야마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 쎬야마들이 1월에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



쎬야마들의 점심 시간에 맞춰서 요리를 끝마쳐야 했기에 다들 정신 없이 준비했어. 어느새 점심 시간이 되었고 제일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 호박밥을 들고 쎬야마들 곁으로 뛰어갔지.

호박 밥, 백숙, 호박전, 두부전, 계란토마토 볶음, 숙주나물, 걸절이로 밥상을 차렸어. 음식들이 쎬야마들의 입맛에 맞아 너무 다행이었어. 맛있게들 먹어줘서 뿌듯했어.

우리들이 먹으면서 연신 감탄했던 음식은 바로 백숙! 정말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갔어. 밥을 먹고 후식으로 오렌지를 먹고 뒷정리를 했어.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보니 께로에 도착했어. 도착해서 다 같이 카페에 갔어. 음료와 스낵을 먹으면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어. 홍차가 맛있었어.

오후 4시에는 우 쏘원이 잘 아시는 클리닉에 함께 갔어. 기다리는 동안 유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진찰받은 후 약도 받았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가 양곤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먹으라고 간식도 사 주셨어. 그리고는 돌아와 저녁을 먹었지. 어느 때와 다른 없는 평범한 일상 같았는데, 행복했어.

쎄야마들이 집에 방문해서 함께 사진도 찍고, 귀여운 아기도 안아주고 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 되었어.

나와 유진이는 우 쏘원 이 태워주신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오빠들과 우 띵이는 트럭을 타고 갔어. 오토바이를 타면서 맞는 밤 공기가 좋았어. 내가 오토바이 중간에 앉았는데 앞에는 우 쏘원이, 뒤에는 유진이가 있어서 든든했어. 유진이와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 우리가 돌아가니까 하늘도 슬퍼 하나 봐. 하하.

이 후, 슬리핑 버스가 도착해서 우리는 무사히 버스를 탔어. 버스 안에서 나는 컨디션이 안 좋아 계속 잤고, 유진이는 잠이 안 와 한숨도 자지 못했어. 추운 버스 안에서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양곤에 도착했어. 우리들은 양곤Y로 돌아가 찢찢한 몸을 씻고, 나, 유진과 간사님은 병원으로 갔어.

자, 이렇게 산에서 있었던 9일간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났어.

모두 들어줘서 고마워!



| 칫데 사진전 |

산에서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11월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
그 시간들을 사진으로 재구성해보았다.
9월호에 이어 다시 돌아온 칫데 사진전이다.

Photo by 준영, 도현, 정민 유진
Edited by 유진

우리 어느 특별한 날 (7) MICT 바자

예정보다 일찍 양곤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들은

11월 12일, MICT(Myanmar Institute of Christian Theology)에서 주최한 바자회에 Y 직원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다.

양곤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부스를 하나씩 맡아 먹거리나 옷, 장식품, 꽃, 장난감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수익을 전부 기부하는 특별한 바자회였는데,

우리 양곤YMCA에서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예쁜 가방, 파우치, 화장품을 주력 상품으로 부스를 꾸몄다.



흡사 학교 축제 때 장터를 연상케 하는 이 흥 넘치는 바자 분위기에
첫데팀의 판매 욕구도 달아올랐다.

가방부터 팔찌, 어린이용 산타클로스 모자까지 온몸에 걸치며 홍보를 하고,
라바~, 찌바~, 왜바~ (오세요~, 보세요~, 사세요~)를 쉬지 않고 외쳤다.
해가 지고 엄청난 벌레 떼들이 장사를 방해했지만, 우리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밤 늦게까지 열심히 팔아서 번 수익은 자그마치 33만 째!
완판 신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 함께 고생해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무엇보다, 바자회 준비를 한다고 전날 밤 함께 물건 정리를 하고
유치원에서 함께 잠도 잔 띠띠 씨야마부터
모마마, 이이산, 메리진, 노깨벨루포, 에띠 씨야마까지
많은 Y 스텝분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행복했다.



아!
마침 바자회가 열렸던 학교 근처에 유명한 파고다들이 있어서,
산드라 간사님은 우리가 점심 먹고 잠깐
이곳들을 둘러볼 수 있게 일정을 짜주셨다.

우리는 유리와 거울 조각들로 벽면을 꾸민 아레인웅아세 폐야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대리석 부처님 상이 있는 짜웃도지 폐야를 갔다.

맑은 듯 조금씩 다른 이 독특한 특색의 파고다들을 구경하니,
미얀마의 사원과 불교라는 종교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또, 햇살도 좋고,
우웬툃과 함께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 것 같아서
더더욱 신나는 날이었다!



우리 어느 특별한 날 (8) YMCA&YWCA 기도주간



11월 셋째주는 YMCA와 YWCA가 함께 준비하는 기도주간(World Week of Prayer)이었다. 이 주간 동안은 Myanmar YMCA나 Yangon YMCA, YWCA가 돌아가면서, 예배 장소를 꾸미고, 예배와 점심 만찬을 준비한다.

우리는 사이트에 가는 날을 제외한 월요일과 목요일에 예배에 참여했다. 인종, 성별, 부,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주제의 예배는 웬지 우리가 진행하는 빈곤퇴치 캠페인과 조금 닮아있다고 느껴졌다. 누군가는 스스로의 빈곤을 종교를 통해 퇴치하려고 할까.

비록 미얀마어로 진행되는 예배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찬송가를 바로 따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함께 한 Y 친구들에게 조금씩 물어보면서, Y 친구들이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응원해주면서, 조금씩 양곤 YMCA 행사에 몰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느 때처럼 11월도 양곤 YMCA는 수많은 행사들을 진행했고, 산드라 간사님은 그 중 특별한 행사들을 선별해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14일에는 양곤의 아주 큰 레스토랑에서 열린 우노 Baptist Church의 200주년 기념 파티에 함께 참석하여, 수많은 초청 가수들의 무대도 보고 지금껏 먹어본 적 없는 다양한 중국 음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25일은 Pastor's fellowship 행사가 열렸는데, 양곤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기부금이나 의약품과 같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었다. 산드라 간사님은 양곤 YMCA가 이렇게 노년층을 돕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설명해주셨다.

널서리

손바닥 나무

11월에는 빼이네빈 마을에도 가고,
비자트립이나 중간평가 기간도 있어서
널서리 활동을 한 주 밖에 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널서리를 하러 사이트에 가서 유치원 문 앞에 서니
혹시나 아이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두려운 마음에 긴장이 되었다.

아이들은
정말 고맙게도,
낯설어하는 기색 없이 기다렸다는 듯 우리에게 달려와주었고,
여전히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었다.

순간 몽클하고 벽차 올랐다.



11월의 널서리 주제는 ‘식물’이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다.
광주 Y의 해밀학교 벽에 그려진 손바닥 나무를 봤을 때부터
아이들과 꼭! 이 활동을 해보자고 다짐했었기 때문이다.

수채화 물감이 낯선 재료인 아이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색깔과 모양을 표현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한 명씩 아이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에 물감을 발라주고,
나무 줄기가 그려진 커다란 종이에 도장처럼 잎사귀를 찍어내서,
형형색색의 커다란 나무를 완성하였다.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에 붓으로 물감을 꼼꼼히 발라주면
아이들은 '야레~(간지러워~)'라며 몸을 배배 꼬고 까르르 웃는다.
이 웃음은 친구들에게도 퍼져나가서
반 전체가 어느새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해진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
우리도 즐겁다.

아이들이 웃으면,
우리들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메마른 나무 가지만 그려져 있던 텅 빈 하얀 도화지가
아이들의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하나씩 채워진다.
아이들도 아주 조금은 느꼈을까.
혼자가 아니라, 옆의 친구와 함께
하나의 나무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도장을 다 찍고 나면,
손바닥과 발바닥을 시원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었다.
차갑고 간지럽다며 도망가려는 아이들을 품에 가두고
더 꼼꼼히, 마디마디, 구석구석 닦아주었다.
다 끝나면 뽀뽀도 꼭! 해주었다.

그 조그마한, 양중맞은 손과 발을 가진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뭐가 그렇게 신기해서 뚱어져라 쳐다봐~
네 예쁜 발이잖니.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감사하게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놀고, 더 신나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시간.
다같이 밥도 더 맛있게 많이 많이 먹고, 낮잠도 더 달콤하게, 늘어지도록 푹 잘 수 있는 시간.
더 많이 눈 마주치고, 더 진하게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시간.

심포가 필요한 우리들에게

태국 비자트립 (11.18~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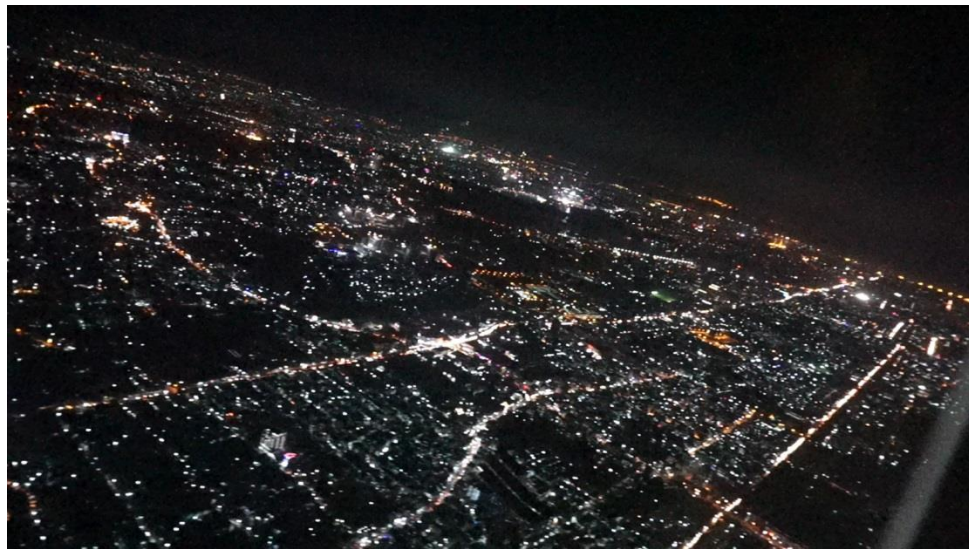
지난 2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 온 우리 찻데팀.

미안마에서의 일정이 다소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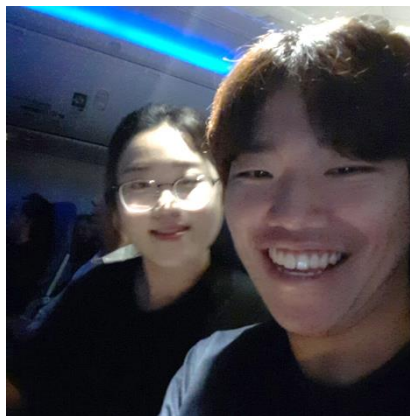
안전 문제 때문에 양곤 YMCA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않았었는데, 이로 인해 조금씩 갑갑함을 느끼고 있었던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피로가 쌓이면서 몸이 지쳐가고 있던 누군가에게는 잠시 멈춰 서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들에게는 약간의 심포가 필요했고, 마침 11월 18일이 비자만기일이어서 산드라 간사님은 우리에게 5박 6일의 비자트립을 선물해주셨다.



함께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일정을 짜고, 지도를 출력하였다.
처음으로, 우리 스스로 계획한 여행을 떠나게 된 우리였다.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내려다 본 양곤의 밤은 유난히 반짝였고, 아름다웠다.
이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방콕에서의 첫 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카오산로드에 갔다.

마사지도 받아보고,
골목 구석구석을 탐방하면서,
옷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실컷 했다.

물론 태국은 세계 음식의 전시장이라니까, 먹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견다 지치면 먹고. 또 견다 지치면 또 먹고.
끊임없이 먹방을 찍은 우리였다.



하지만 이 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날이 우리가 함께 한
마지막 방콕여행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정민은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양 볼이 엄청 부어있었고,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산드라 간사님과 딸 예예, 그리고 유진과 함께 정민은 당장 방콕에 있는 크리스찬 병원에 갔고,
그녀는 '대칭성 이하선염(흔히 알려진 '볼거리'와 유사하다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지 못 할 만큼 너무 아파서 강한 진통제를 먹어야 했고,
약 기운에 열이 나고 잠이 쏟아져 여행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무리였다.

정민과 유진이 방콕 호텔에서 정말 방콕하고 있는 사이,
정민의 상태를 몰랐던 도현과 준영은 짜두짜 시장을 신나게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래...
오빠들이라도 신나게 놀아서
참 다행이야...



그 다음 날부터 함께 가기로 했던
파타야 비치는
이미 수상레저 바우처를 출력해서
환불이 안 되는
도현 혼자 가게 되었고,



정민, 유진, 준영은 방콕에 남기로 했다.

남은 날 동안, 그들은 오로지 정민이 안 아프게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찾아 다녔고,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까지 방콕하고 싶지 않았던 우리는
패기 있게 5성급 호텔 저녁 뷔페를 먹으러 갔다.
5일 동안 쓰지 못하고, 아깝게 남아있던 바트를 탈탈 털어 한번에 계산했다.

그렇게 태국에서의 5박 6일이 지나갔고,
힐링인 듯 힐링 아닌 힐링 같은 비자트립은 끝이 났다.



응원과 조언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중간격려 (11.28~12.2)



타지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다.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면 더욱 더 반갑다.

11월 28일, 규홍 간사님과 광주 YMCA의 소피아 관장님이 오셨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부푼 환상에 가득 찬 채 열심히 썼던 라온아띠 지원서,
출국 전 캠프 때 썼던 '중간평가 시점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김치, 깻잎, 참치, 햄, 김, 라면, 고추장 등 우리가 그리워 했던 한국 음식들과
각종 영양제들까지. 정말 선물을 한 보따리 가득 이고 찾아와 주신 두 분.

그거 아세요?
그 어떤 선물보다 두 분의 방문 그 자체가
저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는 걸. (부끄)





11월 29일은 중간평가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따난 총장님과 산드라 간사님, 규홍 간사님과 소피아 관장님이 함께하신 자리에서,
그 동안 우리가 미얀마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남은 2개월을 보낼 것인지 말씀 드리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널서리 활동을 진행했고, 어떤 YMCA 행사에 참여했는지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솔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미얀마에 와서 어떤 순간에 정말 행복을 느꼈는지,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는지 전해보고 싶었다.
활동 중에 다소 문제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그저 불만인 것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지 고민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이 서툴러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모두 전달되었을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심만큼은 통했기를 바란다.

발표가 끝나고 따난 총장님과 간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얀마와 한국은 참 많이 다르지만, 양곤 YMCA가 한국 청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미얀마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통해,
두 나라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날은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활동지 중 하나인 흘랑따야에 갔다.

유난히 똥꼬발랄했던 아이들 덕분에,

우리와 함께 정말 열심히
아이들과 놀아주신 간사님들 덕분에,

더욱 신나고 즐거웠던
널서리 시간이었다.



특히 흘랑따야는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진행되는 사이트인 만큼,
널서리가 끝난 뒤 함께 마을 라운딩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물을 마시고, 어떻게 돈을 벌며 생활하는지,
양곤 YMCA가 어떻게 그들을 돕고 있는지 설명 들을 수 있었다.

중간평가, 아니, 중간격려 기간 동안

도현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행복했고,
그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준영은 그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정민은 편안한 시간이었다.
포기해야 하는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은 2개월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진은 간사님들의 정말 큰 격려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
남은 시간들은 더욱 소중한고 아름다운 기억들로 가득 찰 수 있을 거라 확신하였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봐 주고, 걱정해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아뵸다!



부록



유진의 간호일기

11월, 정민 언니는 많이 아팠어요.
 이상하게 아프게 된 시점들이 양곤이 아닌 어디론가 떠나게 되면서부터여서,
 언니는 양곤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양곤 지박령도 아니고... 또르르)
 언니의 룸메이트이자 미파주(미안마어로 가족)급 이상으로 늘 언니 곁에 꼭 붙어있는 최측근으로서
 11월, 정민 언니의 몸 상태를 돌이켜봤어요. 이름하여, 유진의 **간!호!일!기!**입니다.



11월 1일, 산스테이트 빼이네빈 마을에 도착하고 이튿날

이 날은 우썸원 아저씨 오렌지 농장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일정이어서
 농장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오렌지 가격이 낮아서 농장 일이 없다는 연락
 을 받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 때 언니는 눈이 따끔거리고 이물감이 느껴져,
 뭐가 들어갔나 생각하며 눈을 부볐어요.



방에 돌아와 안약으로 눈을 씻어냈지만 여전히
 가렵고 따가워서 눈을 계속 부볐어요.



급기야 눈두덩이가 퐁퐁 붓기 시작했고, 마을 의사선생님이신 마모수에
 썰야마가 와서 상태를 보시기까지 했어요. 언니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
 기로 했고, 아쉽게도 이날 오후 급 결성된 널서리는 참여할 수 없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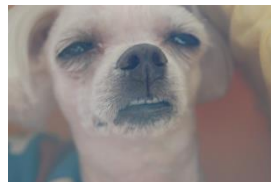
저녁 시간 때쯤이 되자 언니는 차차 괜찮아졌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혹시 이때가 언니의 몸이
 경고한 위험신호였던 것은 아니었나 싶어요.

‘넌 산스테이트와 맞지 않아..! 늦지 않았어,
 어서 도망 가!’와 같은...



11월 7일, 빼이네빈에서 8일째 되는 날

이 날 저녁은 마을 썰야마들과 함께 산카우셰 파티를 열었어요. 맛있게 산
 카우셰를 찹찹 하고 난 뒤, 언니는 배와 목 부분이 가렵다는 느낌을 받았
 어요. 그래서 또 좀 굶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언니는 배와 등이 가려워
 잠을 좀처럼 이루지 못했어요.

11월 8일, 빼이네빈에서 9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언니의 배와 등, 목 전체에 빨간 반점이 퍼져있었거든요. 언니는 알레르기도 특별히 없고,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이었다고 했어요. 저도 사람 배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건 처음 봤어요. 너무 놀라서, 언니가 밤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일!단! 켄야마들께서 아침으로 모형을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모형가 파티를 즐긴 후,



우피이에게 상태를 설명해드렸어요. 마을 대장 켄야마이신 도닌닌카이 켄야마도 언니의 상태를 직접 보셨어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 피부병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새로운 마을, 새로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원인이라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물물로 요리를 해서? 우물물로 샤워를 해서? 이불에 혹시나 진드기가 있어서?



아니면, 4일 전부터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된, 길 잃은 강아지 코코를 안아주어서?



(코무룩)
(코리둥절)



어찌됐든 이런 몸 상태로 산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였고, 우리는 이날 밤 바로 양곤행 버스를 타기로 결정했어요.

급한 대로 제이 켄야마가 따뜻한 물을 수건에 적서 언니 몸에 반점이 올라온 부분을 닦아주셨고, 켄쨌모 켄야마는 파나카를 발라주셨어요. 파나카의 쿨링효과가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 있대요.

결로에 도착하고 난 뒤, 우쑤원과 함께 마을 병원에 가보았어요. 정말 작은 클리닉이었지만 대기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40분 정도 기다리고 의사 선생님을 뵈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3초 정도 언니의 배를 보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산의 물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이라며 바로 먹는 약과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하황



하지만 약이 많이 독했는지, 언니랑 잘 맞지 않았는지... 약을 먹은 후 양곤행 버스에 탄 언니는 또 난생 처음으로 심한 멀미에 시달려야 했어요. 너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해야 했던 언니 손을 조물조물 주물러주었는데,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전 언니에게 산이 참 좋다고 했는데, 언니에겐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구나, 그 동안의 저의 방정맞은 입과 철없었던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이리려고 산에 왔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11월 9일, 양곤에 다시 도착하고...

우리는 10시쯤 양곤YMCA에 도착했고, 언니는 당장 따뜻한 물로 깨끗이 샤워를 했어요. 열흘 동안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을 맞이한 언니는 광명을 찾은 것 같이라며 정말 기뻐했어요.



점심 때에는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간사님 가족 주치의 병원에 가서 좀 더 세심한 진료를 받았고, 가려움을 없애준다는 주사까지 맞았어요. 약과 연고도 좀 더 순하고 효과 좋다는 것으로 다시 처방 받았고요.

그 동안 참 많이 가렵고, 하얀 피부에 빨갱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 참기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준 언니가 고마워요.



11월 10일, 언니 덕에 얻은 꿈같은 휴식의 날



언니는 약도 잘 챙겨먹고, 연고도 꼬박꼬박 바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사실 피부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땀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 산에서 한국 음식을 너무 잘 해먹은 우리는 양곤YMCA의 기름진 반찬을 보며 어쩔 수 없이 맛집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일 수 밖에 없었어요.

11월 12일, MICT 바자로 정신 없었던 어느 날

요새 언니가 피부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몸이 허해졌는지 자꾸 가위에 놀려요. 내 침대 위에서 귀신을 봤다는데 아닌 척 했지만 사실 엄청,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하하황



언니, 진짜 보약 한 채라도 달여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1월 16일, 흘랑따야에서 손바닥나무 했던 날 일기에서

요새 언니가 너무 못 먹어서 걱정이다. 점심 도시락도 안 챙긴다. 산 후유증 때문인지 양곤의 기름진 반찬을 보면 이제 신물이 날 정도라고 한다. 맨 밤에 순창 고추장만 비벼 먹는 언니를 보면 정말 맨짱이다.

11월 18일, 방콕행 비행기에서

우리는 몸이 보내오는 적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비행기를 탈 때부터 턱이 계속 아팠던 언니. 이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11월 19일, 방콕에서 맞은 첫 아침

아침에 일어난 언니는 어제부터 아팠던 턱과 귀밑 부분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만져보았을 때에도 탕탕했죠.

이건 분명 엄청 피곤할 때 생기는 염증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건 초반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오산로드 근처 약국에 가서 소염제를 사먹기로 했어요.



언니는 진통제와 소염제로 버티면서, 여기저기 쏘다니는 걸 좋아하는 오빠들과 저를 위해 온종일 걷고 또 걸었어요. 기념품가게와 롯데리아에서 잠시 실신하기도 했지만요...



이 날 밤, 언니는 밤새도록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방콕에서 방콕해야 하는 운명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11월 20일, 방콕 병원에 가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언니 얼굴이 정말 2배로 부어있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요새 날렵한 V라인과 턱선을 자랑하며 미모 포텐이 빵빵 터지고 있었는데(오른쪽 사진참고!),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부어버린 언니를 보고,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우선 너무 아파하는 언니에게 진통제라도 먹어야 하니, 음식을 뭐라도 먹어 보자고 달랬어요. 우리에겐 먹을 거라곤 카스테라빵 뿐이어서 언니는 그거라도 먹으려고 입을 벌렸는데, 언니가 너무 아팠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푹뚝 흘리더라고요.



우리 언니, 지금까지 충분히 힘들고 아팠는데... 왜 더 아파야 하는 거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왜 저 맛난 빵을 줘도 먹주를 모태!!

산드라 간사님과 방콕 크리스찬 병원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언니는 대칭성 이하선염 진단을 받았고, 원인은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언니도 참... 다 큰 어른이 볼거리라니...! 아무래도 요새 언니가 하도 못 먹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 흔한 볼거리 바이러스 놈들조차 이겨내지 못할 만큼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언니의 미파주로서 언니의 영양상태조차 케어하지 못한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언니에게 단 한 마리의 볼거리 바이러스도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고, 언니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특명은 다음과 같았어요.

1. 언니는 온점질을 해야 한다. 어떻게든 뜨거운 물을 공수해오자.
2. 언니는 4가지 종류의 알약을 먹어야 한다. 정확한 시간에 먹이자.
3. 약을 식후에 먹어야 하니까 뭐라도 먹여야 한다. 입을 덜 벌리고, 덜 씹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 안 그래도 입이 짧은 언니인데,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면역력 회복하려면 영양가도 있어야 한다!
4. 언니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편의점에서 물을 많이 사놓자.
5. 언니는 레몬으로 입을 소독해야 한다. 레몬즙을 잘 뿌려주자.
6. 언니는 보험혜택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랑 영수증을 잘 챙기자.
7. 언니는 앞으로 3일 동안 방콕해야 할 운명이다.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호텔을 빨리 예약하자.

일단 아침에 먹은 진통제 덕분에 조금은 씹을 수 있는 언니를 데리고 호텔 근처 한식당에 갔어요. 김치볶음밥을 시켰는데, 입을 100원짜리 동전크기만 큼 벌리고 밥을 구겨 넣는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덕분에 언니를 지켜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불타올랐어요.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은 커피포트도 없고, 와이파이라도 유료이고, 방도 감옥처럼 갑갑하고 비좁아서 다른 호텔을 찾아 예약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원래 예약했던 파티야 호텔들을 취소하고, 2시간 동안 꼼꼼히 검색해서 근처에 괜찮은 호텔을 예약했죠. (그 날 밤 언니가 걱정되어 미안마에서 날아오신 따난 총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엄청 노하시며 취소하라고 하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예약한 호텔을 사수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무섭고
끔찍했던 이 날
밤의 기억은
회고하고 싶지
않아요.



약을 먹으니 언니는 자꾸만 잠이 오나봐요. 잠에 취해 정신 없이 널부러진 언니를 보며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언니, 약 먹어야지.’, ‘언니, 밥 먹어야지.’,
‘언니, 온점질 하자.’, ‘언니 레몬즙 뿌리자.’
제가 이렇게나 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11월 21일, 볼거리 걸리고 이를 껌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언니는 습관처럼 거울을 봐요. 언니 얼굴을 먼저 보게 되는 저는, 언니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리려고 하지만, 제 입보다 언니 손이 항상 더 빠르죠.

오히려 어제보다 조금 더 부은 언니 모습은 ‘푸린’ 같았어요.



이제 와 고백하는 거지만, 사실 부픈 언니의 볼이 너무 귀여워서 한 번 코옥 눌러보고 싶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지. 미쳤구나.’하며 이성을 붙잡고 간신히 참았어요.
미안, 언니...



안 그래도 못 먹는데, 편의점에서 사먹는 형편없는 죽 따위로는 절대 빨리 나올 수 없죠! 어제도 점심을 제외하고는 너무 맛 없는 것만 먹어서 짜게 식어버린 언니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오늘부터 목표는 ‘잘 먹기’입니다!



아침은 호텔에서 닭고기 죽을 사 먹었고, 점심은 떠난 총장님, 산드라 간사님과 함께 호텔을 옮기느라 조금 늦어졌어요. 이왕 늦어진 것, 언니가 먹고 싶어하는 일식 요리를 잘 하는 식당을 찾아가보자고 길을 나섰지만 핸드폰이나 지도 하나 없이 식당을 찾는 건, 우리 같은 스마트폰 노예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언니는 진통제 기운이 떨어져, 이제 걷기만 해도 턱이 떨려 아파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이에 보이는 아무 초밥집에 들어가서 진열되어있는 초밥들을 쓸어 담았어요. 초밥도 연어 부분을 10조각으로 찢고, 밥 부분을 20조각씩 분해해야 간신히 먹을 수 있었던 언니... 꼬물꼬물 입을 벌리고 토끼처럼 앞으로 오물오물 초밥을 먹는 언니가 참 귀여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예잇. 진짜 빨리 나아버리고 꽃길만 걸어라, 언니야,

점심 먹고 돌아오니 4시더라고요. 이제 저녁 먹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이젠 뭘 산에서 밥해먹는 것보다 더 어렵네요. 언니가 밖에 나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준영 오빠와 둘이 호텔 근처 식당들을 모두 탐방했어요. 맛있고, 부드럽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자! (언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그나마 오빠가 찾은 일식 맛집에서 포장해온 음식이 가장 성공적이었어요!

언니가 배가 아직 안 고프다며, 밥은 안 먹고 노트북을 해요. 빨리 나오려면 먹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는데... 속상해서 깊은 한숨을 쉬니, 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다가가 손가락을 조용히 들어요. 히힝



레몬즙을 뿌려주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언니는 '약 먹고 30분만 이따 뿌리자', '양치만 하고 뿌리자'라며 조금씩 미루다가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서 슬픈 눈을 하고 입을 열어줘요.



갈수록 레몬즙 뿌릴 때 적중률도 높아지고, 언니도 적응해가는 것 같아서 흡족하네요.

11월 22일, 볼거리 걸리고 3일 째

오늘은 좀 많이 나아졌을까 기대하며 언니 얼굴을 봤는데, 아직 그대로였어요. 실망하는 언니에게 어제보다 심해지진 않았다고 밝게 말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위로라고 한 소리인지... 예잇.



이 호텔은 조식뷔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죽이나 달걀 후라이, 시리얼, 수박 같은 것들을 언니가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루 종일 폭신한 침대에 누워 에어컨 바람을 살랑살랑 맞으며 언니랑 수다도 떨고, 늘 어지거 낮잠도 자다가, 또 다시 일어나 수다를 떨었어요.

아! 물론 온찜질과 레몬 소독도 잊지 않았죠.



짱긏☆

방콕에서 방콕한다는 것,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어울리는 힐링 방식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방콕에서의 마지막 밤이니까 우리는 사치를 좀 부리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 진통제를 아낌 없이 털어넣고, 5성급 호텔 저녁 뷔페를 신명 나게 먹으며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흘러 넘쳤어요.



회, 초밥, 샐러드, 스프부터 부드러운 해산물, 신선한 과일과 화려한 디저트 까지...



정말 하얗게 불태운 마지막 만찬이었죠.

11월 23일, 불거리 걸리고 4일째, 양곤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언니 얼굴에 붓기가 가라앉는 게 느껴져요. 붓기가 다 빠지면 얼마나 여신이 될지 벌써부터 흐뭇하고 기대가 됩니당. 언니 생일이 다가와서 언니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마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언니가 빨리 완쾌되기를 기도해요!

체크아웃 시간을 1시 반까지 연장해서, 정말 땀을 뿜아 버리자는 심정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침대에서 누워 쉬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물아일체

공항 면세점에서도 남은 바트를 다 써보겠다고 여기저기 구경하러 다닐 만큼 우린 어리석지 않았어요. 스타벅스에서 조각케익 두 조각과 달달한 음료를 시켜 놓고 마지막까지 수다를 떨었죠. 사실 너무 달아서 곧바로 후회했지만, 마지막 호사라 생각하고 원 없이 이 달콤함을 즐기기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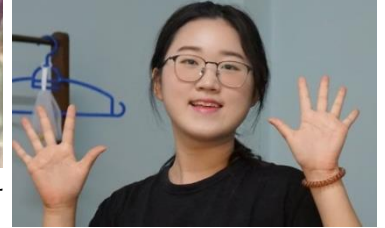
크흐~ 꾸덕꾸덕한 달달함에 취한다~ 만조쿠

11월 24일, 불거리 걸리고 5일째, 중간평가 준비.

점점 언니의 턱선이 모습을 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약 기운 때문인지, 방콕 여행이 고되었는지 언니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처럼 정말 꿈임없이 잠을 자요. 밥 시간 때마다 밥이랑 약을 가져다 놓고 깨우는데, 돌아서면 언니는 금세 잠들어버리네요. 이쯤 되면, 정말 언니가 불거리보다도 기면증을 우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1월 26일, 불거리 걸리고 7일째, 언니 생일

언니의 얼굴이 정말 많이 돌아왔어요. 처방 받은 약도 어제부로 다 먹었고요. 이젠 진통제 없이 입도 잘 벌리고, 잘 씹을 수 있어요. 언니 생일인데 많이 괜찮아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야, 생일 정말 축하하고,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



사방사방

11월 30일, 불거리 걸리고 11일째

11월의 마지막 날, 언니는 여신님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부었다가 다시 돌아오니 언니의 출중환 미모가 빛을 발하네요.



11월은, 언니에게 참 힘든 달이었어요. 체력적으로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운데, 언니는 참 잘 견뎌주었어요. 간사남들께서 중간격려 선물로 한국 음식들과 영양제도 가득 가져와주셨고, 이제 앞으로 2달은 걱정 없어요. 언니가 일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남은 시간들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우리 모두 행복하자!



우리 어색한 사이 아니에요 (짱긋)

* 뽀뽀했던 11월 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힐링같은 시간 덕분이었지.*
우리는 이 행복했던 날을 마.음.대.로 기념일 이라고 칭했어.

부록

내 맘대로 기념일

Edited by 정민

한솔님 오신 날

11월 9일에 한솔 언니가 양곤에 왔어!! 문을 열고 애들아아~하면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지.

광주 미안마 수업 이후로 처음 보는 건데. 뭐지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 기분. 제 5의 멤버인줄...

언니는 양곤의 거리와 맛있는 음식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었어.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밤마다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언니는 껌로로 바람과 같이 사라졌지.

언니, 덕분에 힐링되었어요. 찻데.♡

먹다 지쳐 잠드려

11월 28일, 중간 점검 날. 오신 간사님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 병림 관장님은 한국에서 부터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가져다 주셨어. 다들 환호성을 질렀지. 이 밖에도, 규홍 간사님이 한식, 꼬치구이, 모히또를 비롯해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많이 사주셨어.

먹을 거 주는 사람... 좋은 사람...☆

늦은 시간 까지 다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도 나눴지.

병림 관장님 시크한 말투가 좋아요. 종잇장 같은 규홍 간사님. 펠럭거리시며 지쳐 잠드는 모습이 상상가네요. 다들 찻데.♡

정민 탄생일

11월 26일 생일 날,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기념일로 추가했어. 토요일 아침에 자고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워 미역국을 주던 준영오빠와 유진이가 생각나네. 미역국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눈물)

그리고 끝인 줄 알았는데 깜짝 서프라이즈로 생일 영상과 선물까지 준비해줬어. 감동... 중간점검 준비하는 기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들어준 오빠와 유진이에게 너무너무 고마웠지. 도현오빠, 준영오빠, 유진이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지도 너무너무 좋았어.

다들 찻데 찻데♡



NOVEMBER ESSAY

Only I can change my life. No one can do it for me.



11월은 몸이 바쁜 달이었다.

양곤에서 벗어나 많은 곳을 돌아 다녔다. 양곤에서 기차를 타고 꼬박 2일간을 원없이 자면서 껄로에도 갔었고, 비자 연장을 위해 방콕에도 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라이브러리에서 같이 아침을 드시고 계신 규홍 간사님과 최병림 관장님이 내 앞에 앉아 계셨다.

돌이켜보면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다. 껄로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꿈꿔오던 이상적인 마을' 이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으면 하루가 끝나는 곳' 이었고, 또 누군가에는 '괴로운 시간' 이었다. 매 순간, 순간이 똑같은 사람이면서 다른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맞이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얼굴이냐가 아니라 맞이하는 나임을 이제는 안다.

오랜만에 갔던 널서리에서 무뚝뚝해서 대하기 힘들었던 아이에게 반가운 마음에 장난을 쳤다. 전에는 나에게 시선도 주지 않던 그 아이가 누워서 눈을 마주보며, 나에게 말을 건다. '이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건 힘들겠구나.' 그렇게 일찍 포기했던 나의 태도에서 아이는 아마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모든 문제는 항상 '나'로부터 비롯된다. 출국전 편지에서 썼던 것처럼 쉽게 단정 짓고, 나와 다르면 외면하는 나의 버릇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

그냥 갈 길 가자

KBbank&YMCA Raonatti 16th

2016.12.05

by 하도현



물 잔의 반이 비어있다고 생각해보자. 전통적으로 낙관주의자들은 물 잔의 반이 찼다고 보고, 비관주의자들은 반이 비었다고 본다. 내가 보기에 저 두 부류 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전제부터 잘못됐다. 잔에는 같은 양의 물과 공기가 들어있다.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물 잔의 절반이 '정말로' 비어있다면, 다시 말해 '진공' 이라면 어떨까? 허나, 진공상태조차 정말로 '빈'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양자역학적 의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자.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이 또 하나있다. '잔의 위쪽 아래쪽 중 어느 쪽 절반이 비어 있을까?' 물이 아래에 반이 차있는 형태가 아니라 물이 잔의 위쪽으로 반이 차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달가량이 남았다. '그달이나 남았네.' '그달 밖에 안 남았네.' 내가 보기에 어떻게 말하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게 뭐가 중요한가. 그냥 갈 길 가면 된다.



November

Essay

송정민

행복한 순간들은 하루에 몇 번씩 우리를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짧지만 강렬했던 산에서의 생활이 끝났다.

빼이네빈 마을 살이를 하면서
산의 모든 것이 좋은 팀원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생활이었다.

일기장에 적혀있는 산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힘들다. 불편한 환경,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머리를 감는 것,
머리를 감고 나서도 매우 가려운 것, 너무나도 전통적인 옛날 화장실,
가장 싫은 건 론지를 입고 밖에서 목욕하는 거다. 진짜 제대로
못 씻는 게 제일 힘들다. 씻고 싶다. 밤이 되면 집 안이 너무 좁고,
내가 덮고 자고 있는 이불에는 진드기가 바글거릴 것만 같다.

진짜 나는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달는다.
나는 내가 두려웠던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나는 산의 불편한 환경에 대한 불만을 빼곡히 적어 놓았다.

유독 힘들었던 산 생활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지금.
산에서의 이야기를 보고서에 담기 위해 사진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힘들었던 기억 사이에는
소소한 행복의 기억들이 가득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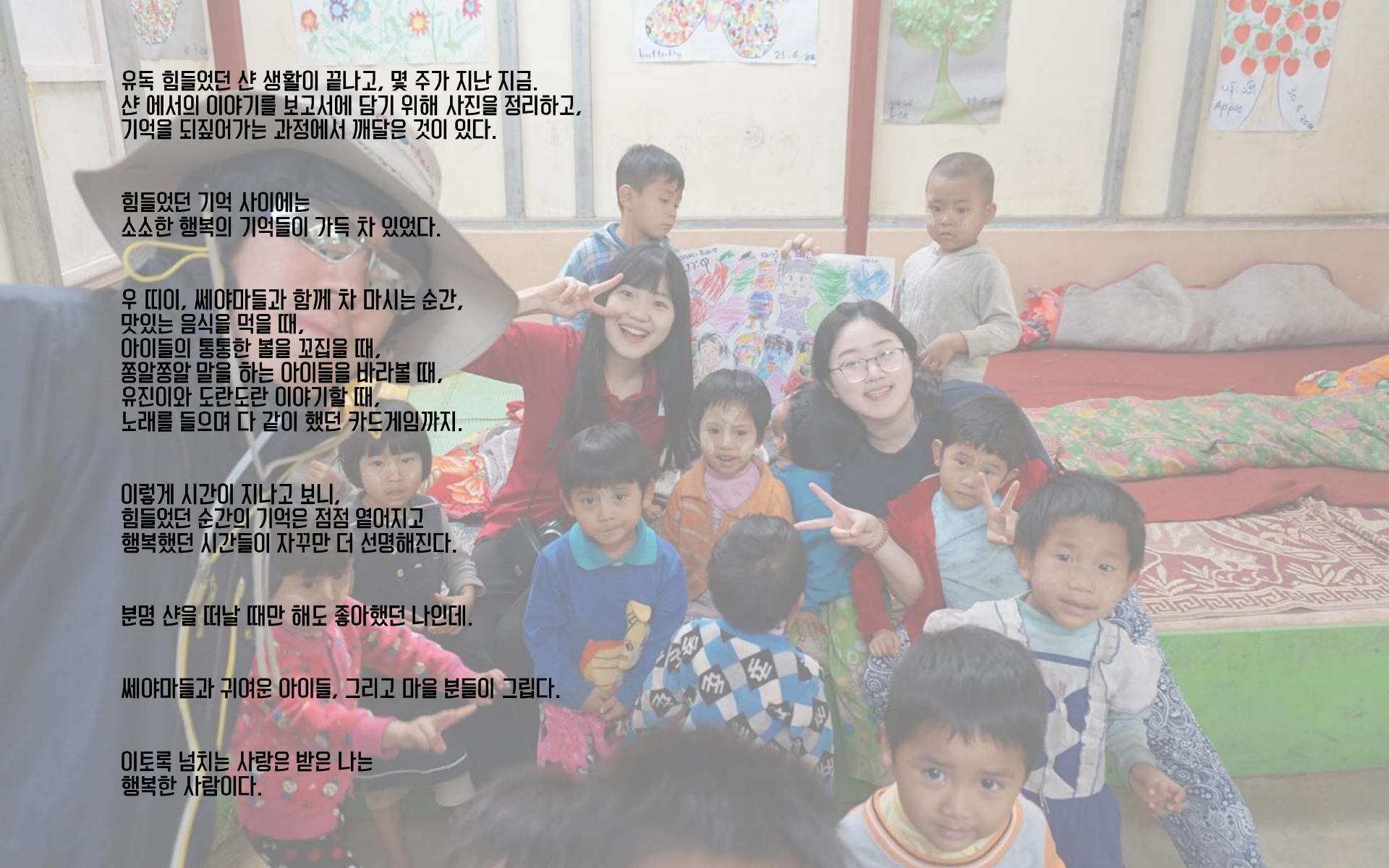
우 띠이, 세야마들과 함께 차 마시는 순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의 톱톱한 볼을 꼬집을 때,
짹알짹알 말을 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유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할 때,
노래를 들으며 다 같이 했던 카드게임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힘들었던 순간의 기억은 점점 멀어지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더 선명해진다.

분명 산을 떠날 때만 해도 좋아했던 나인데.

세야마들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마을 분들이 그림다.

이토록 넘치는 사랑은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겹고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늘 푸념을 해요.

그건 우리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 전체가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은 단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아름다움과 행복은
전체가 아니라 분명히 한 단면이에요.

말하자면,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서 들려오는
지나간 추억의 노래라든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기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인생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한 부분이고 작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창한 것에 인생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한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 그림 좋아하세요?

행복이란 그런 모자이크 같은 거죠.

행복은 그렇게 조각처럼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어요.

때론 하찮게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도저히 아름다운 그림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들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늘 무엇을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정원준 <달과 사진사> -

“11월의 유진”



산, 빼이네빈에서

일기예보 따위 필요 없잖아.
하루에도 억수같이 비를 뿌렸다가, 맑게 햇빛이 비추다가,
구름이 자욱하게 끼었다가, 다시금 쏟아질 듯 별빛을 밝혀주는
이 변덕스러운 하늘이 좋아.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어서.
이 장난꾸러기 같은 날씨라도 불평하지 않고,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좋아.

드넓은 하늘도, 탁 트인 산 능성어도,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도,
그림같이 산 속에 자리잡은 이들의 삶도 너무 좋아.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쓸 줄 아는
마을 사람들의 넉넉함이 부러워.
우리들 눈에는 다소 불편하고 원시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랜 시간 살아오며 그들이 택한 최선의 방식이었고,
주어진 환경을 제일 잘 활용한 그들의 지혜였어.

집집마다 들리는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좋아.
이웃집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거리며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이 모습이 좋아.
마을 입구에 자리잡은 학교도,
이 학교에서 마을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쎄야마들도,
그들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좋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힘을 아는 이 마을이 좋아.

먼 타지에서 온 우리들을 이방인이라고 경계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고, 환한 미소로 맞이해주는 이들의 따뜻함이 좋아.
갑작스런 방문에도 항상 차를 내어주고,
노랑게 잘 익은 오렌지를 대접하는 그 인심이 좋아.
외국인 언니, 오빠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말을 걸고,
가르치는 것이 서툰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다가와,
아낌없이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좋아.

그런데 산, 빼이네빈에서

오렌지로 한 가득 채워진 무거운 바구니를 이마에 걸치고
가파른 경사에 심어진 오렌지 나무들 틈 사이를 비집으며
비에 젖어 미끄러운 진흙 바닥 위를 맨발로 걷는 15살짜리 아이를 볼 때.

쓰레기를 모으고 버린다는 관념이 전혀 없어서
집 뒤의 공터에 무작위로 온갖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 옆 우물가에서 아슬아슬하게 론지만 걸친 채 사위하고
마을 남자들의 시선을 아무렇지 않은 듯 이겨내야 할 때.

내 관점과 내 상식, 내 문화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때.
이것을 그저 문화적 차이로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가
자꾸 고민이 들게끔 하는 애매한 상황에 직면할 때.

그런 때들이 있었다.
어디까지를 '문화'로 규정할 수 있는 걸까, 그 경계가 모호해서 혼란스러웠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자꾸 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서
웬지 죄책감이 들기도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도 산, 빼이네빈에서

나는 항상 꿈꿔왔다.

아이들이 학교가 놀이터인 것처럼 자유롭게 뛰어 놀고,
등하굣길이 소풍을 떠나는 길처럼 설렘 수 있는 이런 학교를 꿈꿔왔다.
배운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일 수 있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토록 보람차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학교를 꿈꿔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예쁜 학교에서,
이렇게 맑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꿈 꾸는 것 같았다.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 책, 어린왕자

이별 여행 연습

이별의 순간이 갑자기 찾아왔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닌누 쎄야마가 날 따뜻하게 안으며, 'See you again.'이라고 말해주셨다.
이 마을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진짜 다시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영영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났다.

급하게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러 학교에 찾아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다리에 꼭 붙어 매달리며 장난쳤던 아웅퇴가
내 표정이 낯설었는지, 이별을 직감했는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도망을 쳤다.
술래잡기 할 시간 없는데,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은데,
속상해서 또 눈물이 났다.

마을을 벗어나는 트럭에 올라타서, 멀어지는 아이들을 향해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잊고 싶지 않아서, 집들을, 나무를, 울퉁불퉁한 길들,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았다.
이 마을을 내가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다. 정말 많이.

갑작스런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슬펐다.
덜컥 겁이 났다. 3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더 많은 이별을 해야 할 텐데...
준비된 이별은 이보다 덜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부터 떠날 순간을 미리 걱정하게 되었다.

사실은 정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험상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별을 할 때,
내가 마음을 많이 줬던 사람일수록 이별하는 순간의 충격은 크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회고할 때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날 기쁘게 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볼 때마다 나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준 그에게 감사하게 된다.

그래야겠다. 이러다 내 마음이 다 닳아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내 온 마음을 다 줘 봐야겠다.
더 파악 안아주고, 더 꼭 입맞춰 줘야겠다.
너희의 눈빛이, 미소가 얼마나 예쁜지, 날 얼마나 행복하게 해줬는지 알려줘야겠다.

그래야겠다.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

내가 꼭 참고 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 역시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자.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며,
내 노력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유치한 보상심리는
결국 내 행동에 진정성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타인에게 보이는 안 좋은 점들이 나에게서는 없었나 돌이켜 보자.
타인이 바뀌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 보자.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자.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라지 말자.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자.

하지만 내 자신도 잃지 말자.
타인에게 이해 받기 위해, 사랑 받기 위해 나를 바꾸지 말자.
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자.

표현

11월의 목표는 '표현하기'였다. 내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나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지금 내 감정과 느낌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적절한 표현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아쉬웠다. 후회가 되었다. 서둘러라도 그냥 뺐어보자고, 한 번 마구 표현해보자고 다짐했다.

지금 당신의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인다고,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 나는 조금 부끄럽다고, 당신의 말투가 참 귀엽다고, 지금 내 가슴이 약간 몽글몽글 몽클몽클 한 것 같다고, 등등. 어린이아이처럼 솔직하게, 여과 없이 표현해보았다. 한번에 잘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지 못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

좋다. 표현하기 직전 설레고 쿵쿵쿵쿵 떨리는 기분도 좋고, 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좋다. 앞으로도 열심히 표현할 것이다, 열심히!





YMCA 직원 기숙사

쉐퍼따 활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기차에서 우띠이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언젠가 꼭 너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어. 한국 음식 만들어줄게. 우리 집은 많이 작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초대받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찾아 뵙고 싶었다.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가족들이랑 맛있는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다.

중간격려 기간, 산드라 간사님은 양곤Y 직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아띠들에게 얼마나 좋은 방을 제공하고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며, 우띠이를 포함해 많은 Y 직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에 우리를 데려가셨다. 그곳은 정말 비좁았고, 먼지가 가득했고, 생각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간사님은 우리 일행을 끌고 이집저집 불쭙불쭙 들어가 짧은 인사를 건넌 뒤 방을 쓱 훑어보게 하셨다. 시찰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무례하고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집에 계시던 Y 직원 가족들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더 부끄러워졌다.

그러곤 간사님께서 우리에게 소감을 물으셨다. So, How was your feeling? 선불리 대답할 수 없었다.

페이네빈에 우리와 동행하셨다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서 며칠 앓아 누우셨던 우띠이가 이렇게 답답한 방 안에서 쉬셨다고 생각하니, 쉬어도 편히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누구보다 하우스키퍼 일을 열심히 하는 베이비와, 꾸미고 멋 부리는 걸 좋아하는 케피 자매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소중한 day off날 집에서 무엇을 하며 쉴 수 있을까, 순간 건방진 생각을 한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 제가 이들의 쉼터와 이들의 삶을 통해, 제 환경에 감사함을 느껴야 하죠? 왜, 이들은 비교당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죠? 미안마는 집값이 비싸고, 양곤Y 측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이런 집이라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셨죠.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양곤YMCA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수시로 추가근무를 하고, 끼니를 제때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걸요. 자선사업 하듯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히려 일한 것보다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까지 한테요, 전.

다음 일정이었던 마사지숍으로 향하는 댄 맨 뒷자리에서
이런 주제 넘은 정의감인지 반항심인지 모를 분노에 휩싸여 찌찌거렸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미워 눈물이 났다.
그리곤 어느새 발 마사지를 받겠다고 의자에 앉는 내 모습이 정말 싫었다.
나도 결국 똑같은 위선자이구나.

다음 날 우띠이 할아버지를 만났다.
미리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주인 안 계시는 집에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했다.
우띠이는 방긋 웃어주시며 괜찮다고 하셨다.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진짜 맛있는 거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함께하는 것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그는 정말 ‘마음’이 넉넉한 분이셨다.

내 가난한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큰 목소리로, ‘네! 꼭 갈게요.’라고 대답했다.

3개월 동안 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현지 간사님과도 잘 소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YMCA의 어떤 활동이라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찰하면서, 내 못난 모습들이 보이면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다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진심은 항상 통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못해 좌절할 적도 있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냐에 따라, 서로 가장 조화로우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 감정을 잘 표출하는 방법, 순간을 즐기는 방법,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들을 배워나갔다. 3개월 전과 나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고,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 3개월의 과정들은 다소 외로웠다. 사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 건지 답답했다.

그리고 중간격려 때 간사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잘 해왔다.’고, ‘정말 잘 하고 있어.’라고 말씀해주셨다. 아... 다행이다. 마음 한 구석에 묻쳐있던 자책이라는 응어리가 순간 풀리는 것 같았다.

남은 여정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웃음이 지어진다.

